

|    |          |              |         |
|----|----------|--------------|---------|
| 이름 | 최종현      | 글쓰기<br>수업 분반 | 11분반    |
| 학번 | 20232590 | 글쓰기<br>담당 교수 | 박인희 교수님 |

## 팁 문화의 한국 도입 반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0232590 최종현

### < 목차 >

1. 서론
  2. 팁과 팁 문화의 개념
  3. 팁 문화가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
    - 3.1 팁 문화로 인한 부담
    - 3.2 팁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결론
- \* 참고문헌

주제문 : 팁 문화는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팁 문화의 한국 도입에 반대한다.

### 1. 서론

팁 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이므로 그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중세 시대 영국에서 농노들이 일을 잘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면 추가 수당을 주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나, 중세 시대 영국 귀족들이 남의 집이나 별장에서 머물 때 하인에게 수고비 개념으로 주는 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sup>1)</sup> 그 문화가 영국의 여러 상업 시설들로 번지게 되었고, 미국으로도 퍼진 것이다.<sup>2)</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기의 팁 문화는 사람들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초기의 팁 문화는 사람들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오늘날의 팁 문화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유는 오늘날 팁 문화가 통용되는 문화권에서는 팁을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팁은 더 이상 주는 사람의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팁을 받는 가게와 앱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팁 문화는 우리나라 정서와 결이 맞지 않기에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팁을 받는 가게와 앱

1) 유선희(2023. 8. 30.), 「미국에서도 불만 나오는데, 한국에 팁 문화를? [유레카]」, 한겨레,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106391.html>(2023. 12. 13.).

2) 이재호(2023. 8. 28.), 「독자칼럼 팁 문화, 한국에 들일 이유 없어」,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8499?sid=110>(2023. 12. 13.).

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해당 가게와 앱을 만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팁과 팁 문화의 개념과 팁 문화가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팁 문화의 한국 도입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 2. 팁과 팁 문화의 개념

팁의 사전적 정의는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sup>3)</sup>이다. 팁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18세기 영국의 커피숍에서는 커피값을 지불할 때 “신속한 서비스 보장(To Insure Promptness)”이라고 쓰여 있는 상자에 돈을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상자에 쓰여 있었던 슬로건의 머릿 글자를 따서 TIP이 유래되었다”<sup>4)</sup>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유럽이나 남미에도 팁 문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북미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만큼 팁을 강요하진 않는다. 미국에서는 팁을 받지 않는 “일반 근로자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인 데 비해,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은 2.13달러로 책정”<sup>5)</sup>되어 있고, 그 차액을 팁으로 메꿀 만큼 팁을 당연시한다. 소비자가 팁을 내지 않으면 팁 근로자들은 연방 최저임금만큼의 임금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미국에서는 식당 웨이터에게는 15~20%, 호텔 벨맨에게는 가방 하나당 1~2달러, 운전사에게는 10~15%, 미용사에게는 5달러 정도의 팁을 준다고 한다.<sup>6)</sup>

## 3. 팁 문화가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

팁 문화가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무분별한 팁 징수 때문에 팁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sup>7)</sup> 원래 팁은 식당, 미용실, 마사지사 같은 곳에서 나를 위해 서비스를 해준 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 같은 개념인데, 최근 들어 카페, 푸드코트, 세차장, 무인 가게, 키오스크, 편의점 등 특별한 서비스가 없는 곳에서도 팁을 요구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sup>8)</sup>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만은 경영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앱의 이용 고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영에

---

3) 국립국어원 편, 「팁」,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52194&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52194&searchKeywordTo=3)(2023. 12. 13.).

4) 김권제(2020. 4. 28.), 「너의 서비스에 감사한다. ‘팁(tip)’ [김권제 칼럼]」,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8>(2023. 12. 13.).

5) 한주희(2015), 「미국 팁 근로자의 현황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제13권 제12호, 한국노동연구원, 22쪽.

6) J.D.Roth(2012. 8. 24.), 「This Is How Much You Should Tip For Every Service」,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this-is-how-much-you-should-tip-for-every-service-2012-8>(2023. 12. 13.).

7) 희수 영어(2023. 5. 17.), <팁을 내야 해.. 말아야 해...🙄🙄 미국인이 말하는 팁 문화의 모든 것!!!🇺🇸 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WlhOpTQijc>(2023. 12. 14.).

8) 올리버쌤(2023. 7. 14.), <한국인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미국에서 팁 내지 마세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3F-AUPF9Fc&t=165s>(2023. 12. 14.).

악영향을 미치려면 사람들이 해당 가게나 앱을 찾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부담이나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팁 문화에 대한 부담이나 부정적 인식을 중심으로 팁 문화가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3.1 팁 문화로 인한 부담

미국의 팁 근로자들은 팁을 받아서 부족한 임금을 채워야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팁을 받기 위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팁 근로자들은 소비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팁 근로자 중 고객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0% 정도라고 한다.<sup>9)</sup> 대다수의 여성 팁 근로자들은 팁 근로자의 입장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부담이 있는 것만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있다. 바로 팁플레이션이다. 물가도 올랐는데 팁까지 올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기존에 미국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15~20% 중 원하는 만큼 팁을 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본을 18%로 두는 경우도 많아졌고, 여러 명이 식사하는 경우에는 20%의 팁이 강제로 청구되는 등 팁의 비율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sup>10)</sup>

예상외로 경영자에게도 팁 문화로 의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바로 굉장히 뛰어난 근로자가 있는 경우이다. 뛰어난 근로자가 있으면 도움만 될 것 같지만, 팁 문화권에서는 뛰어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더욱 많은 손님을 담당하게 되고 손님과 유대관계를 쌓으며 나중에는 그 근로자가 없으면 손님이 가게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경영자는 뛰어난 근로자를 해고하자니 많은 단골손님을 잃게 되고, 계속 고용하자니 경영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역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만약 팁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이 생길 것이다. 팁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야 하는지 규칙처럼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내야 적절한 것인지 혼란만 증가할 것이다. 자기 돈을 더 쓰면서 덜 냈어도 되는 건지 더 냈어야 하는 건지 고민하는 부담까지 생기는 상황이니 대체 불가한 것이 아니고서는 팁을 내야 하는 가게에 방문하거나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 3.2 팁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팁 문화에 대한 근로자의 부정적인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팁은 개인의 외모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받기에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료더라도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팁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근로자는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고 근로 의욕이 떨어진 근로자에게는 손님이 팁을 더욱 적게 줄 것이므로 급여의 차이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팁을 받는 데에는 손님의 결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손님

9)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2014), 「Experience of Harassment from Guests and Customers」, 『The Glass Floor: Sexual Harassment in the Restaurant Industry』,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 24쪽.

10) 윤원섭(2023. 11. 20.), 「“키오스크·테이크아웃인데 팁 달라고?”…뉴욕물가 4대주범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0879524>(2023. 12. 14.).

이 팁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 의욕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팁을 많이 받는 소수의 근로자는 팁 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겠지만 팁을 적게 받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팁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팁 문화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건 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팁은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것을 전가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껏 팁을 냈는데 그 돈이 정말 내가 팁을 준 근로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는 것도 팁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그동안 한 카페에서 앱을 통해 팁을 내왔는데 정작 근로자는 그 팁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낸 팁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sup>11)</sup>

만약 팁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힘들 것이다. 근로자들 간의 비교는 심해질 것이고,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소비자들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으며 팁까지 받으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팁을 받는 가게나 앱을 찾지 않을 것이다.

#### 4. 결론

최근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유명 가게나 앱이 팁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팁을 받는 가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은 팁 문화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팁 박스가 놓여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sup>12)</sup>

앞서 말한 것처럼 팁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근로자들 간의 비교가 심해질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돈도 더 쓰면서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거리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부담과 부정적 인식이 쌓이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팁을 받는 가게에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고 팁을 받는 앱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팁을 받는 가게와 팁을 받는 앱을 만든 회사의 경영 상태는 악화 될 것이다.

미국에는 미국만의 문화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만의 문화가 있다. 미국의 것이 좋다고 해서 미국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팁 문화는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팁 문화의 한국 도입에 반대한다.

---

11) 올리버쌤(2023. 7. 14.), 앞의 동영상.

12) 신아람(2023. 8. 20.), 「'MZ 핫플' 빵지순례 맛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등장한 팁 박스」, 위키트리, <https://m.wikitree.co.kr/articles/879622>(2023. 12. 14.).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편, 「팁」,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52194&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52194&searchKeywordTo=3)(2023. 12. 13.).
- 김권제(2020. 4. 28.), 「너의 서비스에 감사한다. ‘팁(tip)’ [김권제 칼럼]»,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8>(2023. 12. 13.).
- 신아람(2023. 8. 20.), 「‘MZ 핫플’ 빵지순례 맛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등장한 팁 박스», 위키트리, <https://m.wikitree.co.kr/articles/879622>(2023. 12. 14.).
- 올리버쌤(2023. 7. 14.), <한국인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미국에서 팁 내지 마세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3F-AUPF9Fc&t=165s>(2023. 12. 14.).
- 유선희(2023. 8. 30.), 「미국에서도 불만 나오는데, 한국에 팁 문화를? [유레카]», 한겨레,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106391.html>(2023. 12. 13.).
- 윤원섭(2023. 11. 20.), 「“키오스크·테이크아웃인데 팁 달라고?”…뉴욕물가 4대주범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0879524>(2023. 12. 14.).
- 이재호(2023. 8. 28.), 「독자칼럼 팁 문화, 한국에 들일 이유 없어»,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8499?sid=110>(2023. 12. 13.).
- 한주희(2015), 「미국 팁 근로자의 현황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제13권 제12호, 한국노동연구원, 22쪽.
- 희수 영어(2023. 5. 17.), <팁을 내야 해.. 말아야 해...🇺🇸🇺🇸 미국인이 말하는 팁 문화의 모든 것!!! 🇺🇸 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WlhOpTQijc>(2023. 12. 14.).
- J.D.Roth(2012. 8. 24.), 「This Is How Much You Should Tip For Every Service」,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this-is-how-much-you-should-tip-for-every-service-2012-8>(2023. 12. 13.).
-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2014. 10. 7.), 「The Glass Floor: Sexual Harassment in the Restaurant Industry」,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 [https://drive.google.com/file/d/1BKVYPfNDRUWc\\_-29N\\_Pd0LZn33iUXyDz/view](https://drive.google.com/file/d/1BKVYPfNDRUWc_-29N_Pd0LZn33iUXyDz/view)(2023. 12. 14.).